

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입건...보고서 작성 검사 소환(종합)

등록 2026.05.18 17:53:08



[과천=뉴스시스] 박주성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스시스]권지원 기자 = 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심 전 검찰총장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뒷선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전 총장의 재임 초기인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알려지면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관여하게 된 것은 아닌지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의 PC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 막내였던 최모 검사도 이날 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최 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수사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 연수 체류로 인해 대면 조사가 지연됐으나, 최근 특검팀과 일정을 조율해 입국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부장장을 지낸 전 공주지청장인 김모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공주지청을 압수수색해 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기소 문건'을 발견했다.

종합특검팀은 문서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하는 한편, 그해 7월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수사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으며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최 검사 조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로 김 여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사 기록 등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